

# “저성장 해결위해 일회성 양적 완화 고려를”

우리나라도 '양적완화'를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정성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은 캠프 조사연구전문지에 기고한 '저성장 시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거시정책연구'를 통해 "기존의 금리정책으로 소비와 투자를 증가시키기 어렵다"며 "일회성 양적완화를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구조적인 내수침체와 경상수지 흑자 누적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저성장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가계대출금리를 낮춰 가계의 소비 증가를 유도했지만, 10년 만기 국제금리와 기준금리의 상관관계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화되고 있다. 또 GDP갭(실제GDP와 잠재GDP 간의 차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장기 저성장 해법으로 제시 부실채권 매입·서민금융에 자금 공급 검토 필요

이는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으며, 불가도 낮아지는 상황이다. 금리 추가 인하 시 효과보다는 가계부채 증가라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는 유럽의 경제 상황과 유사하다. 유로존의 경우 정책금리가 제로수준에 도달하기 전인 2009년 양적완화를 시작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양적완화를 시행하기에는 준비가 부족하다. 유동성 공급규모와 속도, 이에 따른 경제적 기대효과, 관련 법률 등의 검토도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격적 양적완화 도입 이전 단계인 '일회성 양적완화' 시행을 검토할 시점

이다. 자금공급 대상은 부실채권 매입과 서민금융이다. 특히 중소기업과 기계부문에 대한 부실채권대출, 잠재 부실채권 등을 매입할 기금을 형성해야 한다.

국민행복기금 등 서민 대상 금융활성화를 통해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여러 확충도 필요하다. 이밖에 저성장 탈피를 위해 재정정책을 통한 건전성 강화와 사회보장 및 복지분야 지출확대를 통한 내수 확대에 기여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보건·사회보장 및 복지분야 지출은 증가하는 반면 가장 높은 비율

을 차지하는 경제업무 분야 비중은 200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또 환율이라는 가격변수를 타깃으로 한 정책보다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인해 외환시장의 불안정성 증가를 막는 외환시장 안정화 대책도 필요하다. 정 실장은 "대기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으로 성장해 온 한국경제는 중소기업과 기계부문의 침체와 인구 고령화로 인한 만성적 내수부진에 시달리고 있다"며 "수출부진까지 가세한다면 한국경제는 저성장이 고착화·장기화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경제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려면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며 공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과 추수요 확대를 위해 종래와 다른 정책조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쌍용차, 롱보디 '티볼리 에어' 3월 국내 판매

쌍용자동차가 티볼리 롱보디 제품 티볼리 에어를 3월부터 국내시장에 선보인다.

쌍용차는 티볼리 롱보디 버전 이름을 '티볼리 에어(Tivoli Air)'로 확정 후 3월 국내 시장에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티볼리 에어는 공기(Air)가 창조적 생명 활동의 필수적 요소인 것처럼 다양한 활동을 제약 없이 즐기는 데 꼭 필요한 SUV를 지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아울러 쌍용차는 차량 이미지도 공개했다. 차량 전면부는 라디에이터 그릴과 바벨(Barbel) 타입의 범퍼가 조화를 이뤄 역동성을 강조했다. 측면은 역동성과 강인함을 표현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티볼리 롱보디 모델은 1.7L 급 준중형 SUV 모델과 비교해 폭넓은 활용성 등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

## 1월 가계대출 2조2000억 증가

월중 기준 역대 최대치... 집단체대출 등 담보대출 증가 영향

1월 은행 가계대출이 2조2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상으로는 증가세가 꺾인 것으로 보이지만 월중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증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16년 1월 중 금융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 잔액은 641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2000억원 늘어났다. 이는 전월(6조3000억원)에 비해 둔화된 것이지만 1월 기준으로 2008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대폭 증가다.

지난 3년간 1월중 가계대출 증가액은 2013년 -3조5000억원, 2014년 -2조6000억원, 2015년 1조4000억원으로 평균 -8000억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올 1월은 주택 거래량이 줄어들었음에도 지난해부터 지속된 아파트 분양 호조 등에 힘입어 집단체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은 전월보다 2조8000억원 증가한 479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증가액(2조5000억원)과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2008~2014년 1월중 평균 주택담보대출 증가규모(4000억원)에 비해서는 높은 수치다.

미이너스성장 대출 등 기타대출은 연 말·연초를 맞아 상여금 지급 등의 영향을 받아 6000억원 줄어든 180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의 기업대출은 731조원으로 전월보다 6조3000억원 늘어 증가세로 전환됐다. 지난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대출이 모두 증가한 영향이다.

대기업 대출은 연말 부채비율 관리를 위한 일시상환분 채취금 등으로 3조원 증가했고, 중소기업 대출은 부가가치세 납부와 설 연휴 등에 월말 휴일로 결제성자금대출 상황이 지연되면서 4조원 늘어났다.

1월중 은행 수신은 전월(20조7000억원 증가)보다 2조9000억원 줄어들어 감소세로 전환됐다. 기업들이 부가가치세 납부 등으로 수시입출식예금을 인출한 영향이다. 다만 정기예금은 은행들의 예대율 관리를 위한 유치 노력 등으로 3조3000억원 증가했다.

자산운용사 수신은 머니마켓펀드(MMF)를 중심으로 전월(-4조3000억원)보다 2조35000억원 증가했다.

MMF는 지난해 말 기업들의 재무비율 관리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인출된 법인자금과 연초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대기성자금 등이 유입되면서 16조8000억원 늘었다. 이는 2009년 1월(18조5000억원) 이후 최대폭으로 늘어난 규모다. 채권형펀드는 시장금리 하락으로 채권 평가이익이 기대되면서 13조7000억원 늘었고 신증펀드는 일부 파생상품 펀드를 중심으로 3조8000억원 증가했다. /김민근 기자



우리는행 개성지점 임시영업점 개성공단에서 영업했던 우리은행이 철수한 15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마련된 개성지점 임시영업점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 2014년 기술무역 적자 58억달러 육박

전기전자분야 가장 커

2014년 기술무역 적자 규모가 58억달러에 육박했다.

핵심산업을 뒷받침하는 원천기술이 부족해 사용료를 주고 기술을 빌려다 쓸 수밖에 없어 기술무역 적자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최근 공개한 '2014년 도 기술무역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기술무역 규모는 전년 대비 15.4%(64억2100만 달러) 증가한 253억500만달러로 나타났다. 기술수출은 42.6% 증가한 97억6500만달러, 기술도입은 29.1% 늘어난 155억4000만

달러로 기술무역수지는 57억75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기술무역 적자가 가장 큰 산업은 전기전자로 43억9000만달러에 달했다.

하지만 기술무역 수지비(기술수출액을 기술도입액으로 나눈 수치)가 5년 연속 개선 추세를 보였다. 2014년 기술무역 수지비는 0.63로 2010년 0.33보다 대폭 호전됐다. 미래부는 "최근 5년간 기술무역수지비가 꾸준히 개선됐지만 수지는 여전히 적지"라며 "대기업이 외국 특허를 활용해 제품·서비스를 제조·수출하는 산업구조 때문에 상품수출 증가에 따라 기술로열티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김민근기자

## 지난해 12월 시중통화량 2242조로 증가세 주춤

시중 통화량이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유지했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15년 12월중 통화 및 유동성 동향'에 따르면 12월 시중통화량(M2·광의통화)은 2241조8000억원으로 작년 같은달 대비 7.5%(평균·원계열 기준) 증가했다. 전월(7.7%)보다는 증가율이 다소 축소됐다.

M2는 즉시 유통화할 수 있는 현금과 금융자산 등으로 시중에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렸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통화 지표다. 기준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M2는 지난해 7~9%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금융상품별로는 2년 미만 정기예적금이 전월 대비 5조5000억원 늘었고,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은 1조8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MMF(머니마켓펀드)는 5조1000억원 감소했고, 시장형상품(-3조원), 2년 미만 금전신탁(-2조1000억원)도 감소세를 보였다.

경제주체별로는 가계(6조6000억원)와 기업(6조원)은 증가한 반면 기타금융기관은 9조1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1월중 M2증가율은 전월보다 상승한 8% 내외로 추정됐다. /김민근 기자

## 스마트저축은행 애플리케이션 '스마트뱅크' 출시

스마트저축은행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스마트뱅크'를 출시하고 홈페이지 개편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앱은 예금가입 및 해지, 거래내역조회, 이자조회 등은 물론 신용대출과 자동차대출, 햇살론 등 대출상품의 신청과 대출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홈페이지는 인터넷뱅킹과 예금상품 등 콘텐츠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스마트저축은행은 앱 출시와 홈페이지 개편 기념으로 이를 통해 예금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0.2%포인트 추가금리 제공 행사를 진행한다. 또 대출신청 고객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한다. 스마트저축은행 관계자는 "홈페이지 리뉴얼 및 앱 출시를 통해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